

혁신정책

EU 폰테어라이엔 2기 집행위원회의 혁신정책 추진 방향 및 시사점 : 경쟁력 나침반 이니셔티브의 주요 내용

KISTEP 과학기술정책센터 송창현





EU 폰데어라이엔 2기 집행위원회의 혁신정책 추진 방향 및 시사점 : 경쟁력 나침반 이니셔티브의 주요 내용

(2025.2.13, 과학기술정책센터 송창현)

1 작성 배경

- 유럽연합(EU)은 2000년대 이후 성장률 둔화에 대한 우려가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으며, 최근에는 세계 3대 경제권(미국, 중국, EU) 중 가장 경쟁력이 낮아 총체적인 위기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음
 - 한동안 아시아 시장의 급격한 성장에 따른 EU 기업들의 점유율 확대, 지정학적 안정성과 미국의 안보 우산에 의한 낮은 국방비 부담과 원활한 에너지 수급으로 인해 문제가 가시화되지 않음
 - 하지만 AI로 대표되는 첨단기술 산업 경쟁에서 미국은 물론 중국에도 밀리면서 주도권을 놓쳤을 뿐 아니라 향후 중장기적인 성장 동력이 불투명한 상태
- EU는 폰데어라이엔 2기 집행위원회 출범('24.12.1.)을 전후로, EU의 위기 극복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일련의 조치들을 시행하고 있음
 - 2024년 4월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최된 EU 특별 정상회의에서는, EU의 글로벌 경쟁력 위기를 핵심 안건으로 상정하고 대응 마련을 위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
 - 2024년 상반기 EU 의장국이었던 벨기에는 엔리코 레타 前 이탈리아 총리에게 EU 단일시장 경쟁력 회복에 대한 보고서를, EU 집행위원회는 마리오 드라기 前 유럽중앙은행 총재에 EU 경쟁력 제고를 위한 보고서 작성을 요청
 - 폰데어라이엔 2기 집행위원회는 드라기 보고서의 핵심 제안 내용을 바탕으로 혁신정책 추진 예정
 - EU의 경쟁력 강화 전략인 '경쟁력 나침반(Competitiveness Compass)'이 발표('25.1.29.)되었으며, 이후 '청정산업딜(Clean Industrial Deal)' 등 관련 입법 추진이 예정되어 있음
- 본 고에서는 최근까지 이뤄진 EU의 혁신정책 관련 논의와 EU 경쟁력 나침반 이니셔티브의 주요 내용을 바탕으로 혁신정책 추진 방향을 정리하고 한국에의 시사점을 도출
 - 한국은 EU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의 상당수를 동일하게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EU의 대응 방안을 참고하여 국가 차원의 통합적 혁신정책 추진을 검토할 시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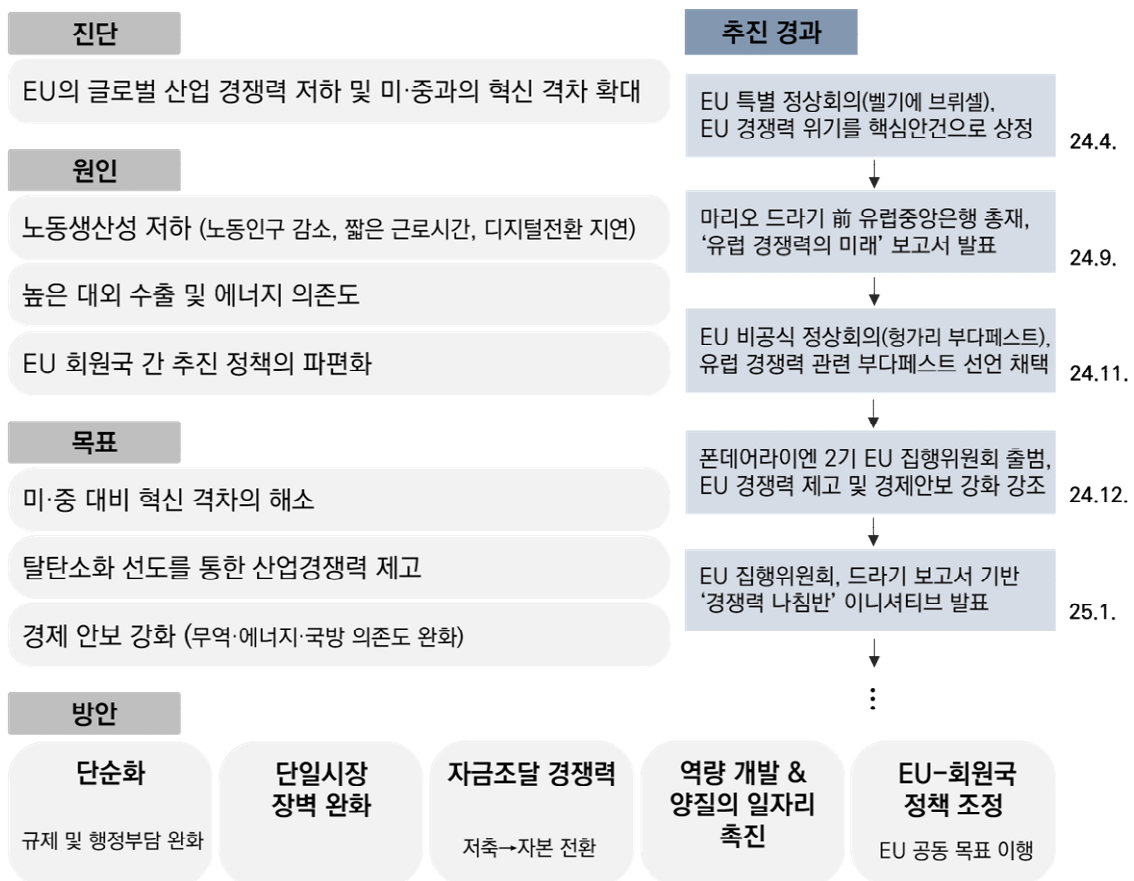
2 최근 EU의 혁신정책 추진 논의 경과

- 최근 EU 저성장의 원인으로 ① 상대적인 노동생산성의 저하, ② 지나친 대외 수출 및 에너지 의존도, ③ EU 회원국 간 추진 정책의 파편화 등이 거론됨
 - EU의 생산성 저하는 노동 인구의 감소와 상대적으로 짧은 근로시간, 그리고 디지털 경쟁력의 확보 지연에 따른 것으로 진단하고 있으며, 특히 미국 대비 생산성 격차가 크게 벌어진 상황*
 - * 2023년, EU와 미국의 GDP 격차는 2015년 가격 기준으로 30%이며 구매력 평가(PPP) 기준으로는 12%
 - EU 내 성장 둔화에도 불구하고 대외 무역, 특히 성장세가 가파른 아시아 시장으로의 무역 확대에 의해 수혜를 입었으나, 최근 미국과 중국을 필두로 다자주의 무역 질서에 반하는 흐름 조성
 - 또한 EU는 러시아로부터 천연가스를 수입하면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에너지원을 이용할 수 있었으나, 러시아-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로 에너지 수급 불안정*에 따른 가격 급등
 - * EU의 천연가스 수입량 중 러시아산 비중은 2021년 45%에서 2023년 15% 이하로 감소
 - 개별 회원국들과 EU 차원의 추진 정책 간 연계·조정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못하고 있으며, 의사결정의 속도가 느리고* 분산화되어 있어 미국, 중국 등에 비해 신속한 대응이 어렵다고 진단
 - * EU 집행위원회의 제안에서부터 법안에 대한 회원국들의 서명까지 입법 과정에 평균 19개월 소요
- EU 혁신정책의 청사진을 제시하는 두 건의 핵심 보고서(레타 보고서, 드라기 보고서) 발간
 - 엔리코 레타 前 이탈리아 총리는 EU 단일 시장의 미래에 대한 보고서* 발표('24.4.)
 - * Much More Than a Market: Speed, Security, Solidarity
 - EU가 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4요소(상품, 서비스, 인력, 자본) 외에 연구·혁신(R&I)의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한 단일 시장(single market)이 필요함을 제안
 - 마리오 드라기 前 유럽중앙은행 총재는 '유럽 경쟁력의 미래' 보고서* 발표('24.9.)
 - * The Future of European Competitiveness (Part A & Part B)
 - EU의 혁신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① 첨단기술 분야에서 EU와 미·중 간 혁신 격차 해소, ② 탈탄소화 기반의 산업경쟁력 제고, ③ 경제·에너지·국방 안보 강화를 주요 어젠다로 제시
-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개최된 EU 비공식 정상회의에서 EU의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한 '새로운 유럽 경쟁력 협약에 관한 부다페스트 선언'* 채택('24.11.8.)
 - * Budapest Declaration on the New European Competitiveness Deal
 - 주요 내용으로 ① EU 단일 시장의 활성화 및 통합 자본시장의 구축, ② 탈탄소화 및 에너지, 원자재 주권 확보를 위한 포괄적인 산업 전략 추구, ③ 규제 체계의 간소화 등을 포함
 - 2030년까지 GDP 대비 R&D 투자 비중 3%, 2050년까지 에너지 주권 및 기후중립 달성을 목표로 제시

□ 폰테어라이언 1기 EU 집행위원장이 연임에 성공하고('24.7.18.), 2기 집행위 출범('24.12.1.)

※ 2024년 11월 27일 투표에서 과반수의 찬성(찬성 370표, 반대 282표)으로 차기 집행위 출범 승인

- 폰테어라이언 1기와 비교할 때 EU 회원국의 경쟁력이 약화되었고, 미중 패권 경쟁 상황에서 중국발 공급과잉 및 차기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조치 예고 등으로 EU 경제안보 강화 필요
 - 폰테어라이언 2기 집행위원회는 EU의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① 친환경 투자 확대, ② 미국과 중국에 뒤지지 않는 대규모 투자, ③ 기업 대상 규제의 완화를 핵심 정책 방향으로 설정
 - 유럽의회 및 EU 집행위원회는 이전보다 더 보수화되었고 독일이나 프랑스 등 주요 회원국에서 정치적 혼란이 가중되고 있어 EU 차원의 통합적인 리더십이 더욱 중요한 시점임
 - 유럽의회 선거 결과('24.6.10.) 중도우파 성향의 유럽국민당(EPP)이 1위, 양대 극우 정당 (ECR, ID)이 각각 4, 5위를 차지하였고, EU 집행위원회에서도 보수성향 정당이 과반 차지
 - 독일은 신호등 연정이 붕괴*되면서('24.11.9.) 2025년 2월 조기 총선이 치러질 예정이고, 프랑스에서는 2025년 예산안을 둘러싼 갈등 끝에 총리와 내각이 총사퇴**('24.12.4.)
- * 사회민주당(빨강), 자유민주당(노랑), 녹색당(초록) 등 3개 정당이 연립정부를 구성하였으나, 올라프 솔츠 총리 (사회민주당)가 크리스티안 린드너 재무장관(자유민주당)을 해임하고, 이에 자유민주당이 탈퇴함으로써 연정 붕괴
- ** 공공지출 감축과 증세를 담은 예산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한 거대 야당(극우정당인 국민연합(RN)과 좌파 연합으로 구성)이 하원에서 미셸 바르니에 총리에 대한 불신임안을 통과시켰고, 이후 정부 내각이 총사퇴



[그림 1] EU 혁신정책 추진 경과

3 EU ‘경쟁력 나침반(Competitiveness Compass)’ 이니셔티브

□ 폰테어라이엔 2기 집행위원회는 드라기 보고서의 핵심 제안 사항을 바탕으로 유럽의 경쟁력 제고를 주요 골자로 한 첫 번째 이니셔티브인 ‘경쟁력 나침반(Competitiveness Compass)’ 발표

○ 본 이니셔티브에서는 3대 핵심 영역으로 ① 혁신 격차의 해소, ② 탈탄소화와 경쟁력, ③ 과도한 의존도 완화 및 안보 강화를 설정

- 이를 위한 5대 촉진 요인으로 ① 규제 및 행정체계의 단순화, ② 단일시장 장벽 완화, ③ 자금 조달 경쟁력, ④ 역량 개발 및 양질의 일자리 촉진, ⑤ EU와 개별 회원국 간 정책 조정을 제시

〈표 1〉 EU ‘경쟁력 나침반’ 이니셔티브의 3대 핵심 영역(pillar)과 주요 추진 내용

3대 핵심 영역	주요 추진 내용	
1. 혁신 격차의 해소 (Closing the innovation gap)	혁신 기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유럽혁신법(European Innovation Act)을 제정함으로써 혁신기업의 연구 인프라 및 공공 R&D 지식재산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고, 규제 샌드박스 촉진 예정 • EU 전체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법적 프레임인 28번째 체제(28th regime)를 도입함으로써 27개 EU 국가별 서로 다른 법체계로 인한 비용 감소 기대
	혁신 투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저축 및 투자 조합(Savings and Investments Union) 프로젝트를 통해 스타트업 대상 벤처캐피탈 시장 활성화 조치 시행 • EU 전략적 우선순위에 연구 지원을 집중하기 위해 EU-회원국 간 자금 조정을 담은 유럽연구분야법(European Research Area Act) 발표 예정
	핵심 기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(AI) AI 팩토리 이니셔티브(AI factories initiative), EU 클라우드 및 AI 개발법(EU Cloud and AI Development Act) 등을 통해 EU의 AI 리더십 확보를 위한 컴퓨팅, 클라우드, 데이터 인프라 개발 촉진 • (양자) 양자전략(Quantum Strategy) 및 양자법(Quantum Act)을 통해 파편화된 규제를 정리하고, 범유럽 양자컴퓨팅과 인프라에 대한 투자 • (바이오) EU 바이오경제 전략(EU Bioeconomy Strategy)과 유럽 바이오테크법(European Biotech Act)을 통해 제약에서 농업, 에너지, 식품에 이르는 다양한 분야에서 바이오 기술 혁신 촉진 • (첨단소재) 혁신적인 첨단소재 수요 증가와 이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기 위해 첨단소재법(Advanced Material Act) 발의 • (우주) 우주 분야는 2030년까지 9배 가량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며, EU 차원에서 내부시장 활성화 및 회원국 간 조정을 위해 우주법(Space Act) 제안
	혁신 확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유럽이 전통적으로 강세인 기술·산업 부문에 시를 통합하고, 공공 서비스를 디지털화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최첨단 디지털 인프라에 대한 투자 촉진 및 시장 인센티브 개선 등을 담은 디지털네트워크법(Digital Networks Act) 추진
2. 탈탄소화와 경쟁력 (Decarbonisation & competitiveness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청정산업딜(Clean Industrial Deal)은 2050년까지 탈탄소경제로의 완전한 전환을 목표로 하는 EU의 핵심 이니셔티브로서, 탈탄소화 정책과 산업·경제·무역 정책의 통합을 통해 성장 동력으로 활용 • 저렴한 에너지 실행 계획(Affordable Energy Action Plan)은 가정과 산업에서 저렴한 에너지로의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에너지 시스템 비용의 공정한 배분 등 다양한 조치 포함 • 청정생산 및 순환경제로의 빠른 전환을 위해서는 공공 조달에서 우대, 차액 계약을 통한 인센티브 제공 등 거대한 EU 내수시장을 적극 활용한 전략들이 요구됨 • 탈탄소화 과정에서 철강, 금속, 화학 등 전통적인 에너지 집약적인 산업이 가장 취약하므로, 이러한 산업들을 대상으로 한 전략적인 맞춤형 실행 계획 필요 • 모빌리티 및 운송, 항만 및 해양 산업, 고속철도 등의 분야에서도 지속가능한 탈탄소화 추진 • 순환경제법(Circular Economy Act)을 제안함으로써 재활용을 늘려 원자재를 효과적으로 대체하고, 폐기물과 2차 및 재사용 가능 물질에 대한 단일시장을 창출하는 방안 제시 	

3대 핵심 영역	주요 추진 내용	
3. 과도한 의존도 완화 및 안보 강화 (Reducing excessive dependencies & increasing security)	무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한국·싱가포르와의 디지털 무역협정(Digital Trade Agreement), 호주·캐나다·일본 등과의 상호인정협정(Mutual Recognition Agreements) 등 기존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한편, 청정 무역 및 투자 파트너십(Clean Trade and Investment Partnership)이라는 새로운 범정부 파트너십으로 통합 추진 • 제3국으로의 무역 다각화(EU-메르코수르 협정, EU-멕시코 글로벌 협정 등) 및 특정 국가 무역 의존도 감소를 통해 높은 수준의 무역 개방성 유지 • 불공정 경쟁으로 EU 단일시장이 위협받을 경우 무역 방어 수단을 동원하고 보조금 규제 등을 추진할 예정이며, EU 회원국 간 공조를 통해 역외 공급업체에 대한 영향력을 높이기 위해 중요 원자재 공동 구매 플랫폼(platform for the joint purchase of critical raw materials) 구축 • EU 회원국의 역량 보호를 위해 전략 기술·산업 대상 공공조달 유럽 우선권(European preference in public procurement) 도입
	국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EU 방위산업은 비EU 국가 의존도가 높는데, 유럽 국방의 미래에 관한 백서(White Paper on the Future of European Defence)를 통해 EU 회원국 간 국방 협력 강화, 공동 국방 조달을 통한 수요 통합, 방산 단일시장 구축 등 다양한 조치 제안 예정
	기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글로벌 기후 위협의 정기적인 평가와 인프라 개선을 통한 회복력(resilience) 강화를 위해 유럽 기후 적응 계획(European Climate Adaptation Plan) 발표 예정 • 효율적인 물 관리와 지속가능한 물 사용 촉진을 위해 유럽 물 회복력 전략(European Water Resilience Strategy) 발표 예정

〈표 2〉 EU ‘경쟁력 나침반’ 이니셔티브의 5대 촉진 요인(enabler)과 주요 추진 내용

구분	주요 추진 내용
1. 단순화 (Simplification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EU, 회원국, 지역 수준에서 허가 등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여 행정 부담을 크게 완화 • 기업 규모에 비례하는 규제 체계 적용을 위해 중견기업 범주를 신설하여 맞춤형 규제 간소화 추진 • European Business Wallet 이니셔티브는 기업들이 모든 공공기관과 원활하게 상호작용할 수 있는 디지털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목표 • 한 번 도입되면 완화, 폐지되지 않고 계속 강화되는 경향이 있는 규제 래칫(regulatory ratchet)을 피하기 위해 집행위원회와 유럽의회가 협력
2. 단일시장 장벽 완화 (Lowering barriers to the Single Market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EU 단일시장에서 여전히 상품과 서비스, 자본, 인력의 자유로운 이동을 막는 장벽들이 남아 있고 새로운 장애물이 나타나고 있어 장벽의 제거와 새로운 장벽의 생성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 • 특히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이 표준 제정 프로세스에 더 빠르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기회 마련
3. 자금조달 경쟁력 (Financing competitiveness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EU 기업들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VC와 주식시장이 필요하나 여전히 은행 금융에 지나치게 의존 • EU의 높은 가계 저축률을 민간 투자로 전환하기 위해 저축 및 투자 조합(Savings and Investments Union) 전략과 실행 계획을 통해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상품 이용 장려 • 차기 다년도 재정 프레임워크(Multi-annual Financial Framework)에서 EU의 경쟁력 우선순위 지원을 위해 EU 예산의 구조와 배분을 재고하고, 유럽경쟁력기금(European Competitiveness Fund)을 신설하여 통합적 관점에서 투자 추진
4. 역량·양질 일자리 촉진 (Promoting Skills & quality jobs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역량(skills)과 노동시장 수요 간 적절한 조화를 목표로 한 Union of Skills 이니셔티브 발표 예정 • 노동 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계층의 노동시장 참여율 제고 • 산업과 노동시장의 빠른 변화로 인해 불안정한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안전망 구축
5. EU-회원국 정책 조정 (Better coordination of policies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EU 전체의 공동 관심사 및 경쟁력 우선순위에 대해 회원국들이 함께 행동하기 위해 새로운 경쟁력 조정 도구(Competitiveness Coordination Tool) 제안 (초기 단계에 에너지 및 운송 인프라, 디지털 인프라, 중요 의약품 등의 분야에 대해 시범적으로 EU와 회원국의 정책 조율 시도)

4 시사점

- EU는 미·중 패권 경쟁이 더욱 심화됨에 따라 국제무대에서의 독자적인 영향력을 확보하기 위해 작년부터 유럽의 경쟁력 제고에 대해 논의해왔으며, ‘경쟁력 나침반’ 이니셔티브가 그 결과물
 - 폰데어라이엔 2기 집행위원회는 집권 5년 동안 ‘경쟁력 나침반’ 이니셔티브를 토대로 혁신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며, 관련 입법이나 전략 수립이 순차적으로 예정되어 있음
 - ‘경쟁력 나침반’ 이니셔티브의 세부 추진사항들은 과거 산발적으로 추진되던 정책들과 내용 면에서는 크게 차이가 없지만, ① EU의 위기라는 인식과 경쟁력 제고라는 1순위 목표를 토대로 회원국 전체의 정책 추진 역량을 집중한다는 점, ② EU를 둘러싼 대내외적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획기적인 규제 완화나 단일시장 확대, 경제 안보 강화 등 다소 도전적인 목표를 설정한 점 등이 특징
- 미국과의 혁신 격차는 종전보다 더욱 커지고, 중국도 일부 기술·산업에서는 이미 EU를 앞서나가기 시작했음을 인정하고 이 국가들과의 격차를 줄이는 것을 EU 차원의 목표로 설정
 - AI, 양자, 바이오 등 미국과 중국이 주력하는 첨단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투자를 확대하여, 글로벌 기술 공급망에서의 대외 의존도를 낮추고 유럽 국가들의 기술 주권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추진
- EU는 강점을 가진 탈탄소화 분야를 더 고도화하여 산업경쟁력 제고의 발판으로 마련하려고 계획
 - EU는 신재생에너지 등 청정기술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우위일 뿐 아니라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에 취약하고 향후 화석 연료 의존도를 낮춰야 하는 입장으로서 탈탄소화 추진이 필수불가결
 - 그래서 미국은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화석 연료 기반의 경제체제로 복귀하려는 경향*을 보이고 있는 반면, EU는 오히려 기후 중립 추진, 신재생에너지 개발 등 탈탄소화를 더욱 가속화
 - * 석유, 천연가스 등 전통적인 에너지원의 생산·활용 촉진, 환경 규제 완화, 재생에너지 지원 축소 등
 - EU는 탄소배출권거래제(ETS)와 탄소국경조정제도(CBAM) 등 탈탄소화 관련 제도를 무역장벽으로 활용하고 있는데, 이후 발표될 청정산업딜(Clean Industrial Deal)을 통해 탈탄소화를 산업 경쟁력 제고 및 경제성장과 어떻게 연계할지 주목할 필요가 있음
- ‘경쟁력 나침반’ 이니셔티브를 필두로 분산적으로 추진되던 각종 혁신정책들을 EU의 경쟁력 제고라는 관점에서 통합적으로 추진하고자 함
 - EU 내에서 정치적, 경제적 통합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*가 꾸준히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, EU 전체의 위기론을 바탕으로 종전보다 더 강력한 통합을 촉구
 - * 브렉시트(Brexit)에 따른 영국의 EU 탈퇴, 난민 정책에 대한 동유럽 국가들의 반발, 최근 EU 및 회원국들에서 극우 정당의 약진 등
 - 이번에 집권한 EU 집행위원회가 회원국 간 충돌하는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공동의 우선순위를 위해 협력을 이끌어 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됨

□ 한편, EU가 진단하고 있는 현재 상황과 그 원인은 상당 부분 한국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어 EU의 대응 전략을 면밀하게 검토해볼 필요가 있음

- 기존에 유럽의 성장을 견인했던 요인들*이 최근 들어 위협받고 있는데, 한국도 비슷한 상황
 - * ① 개방된 글로벌 무역 시스템에 의한 강력한 외부 수요, ② 저렴하고 풍부한 화석 연료 에너지에 대한 접근성, ③ 상대적으로 안정된 지정학적 위치 및 미국의 국방 안보 지원 등
- 한국도 글로벌 경쟁력 확보 관점에서 정부 차원의 집중적이고 통합적인 정책 추진 검토 필요
 - 한국이 상대적으로 강점을 갖는 기술·산업 분야를 특화하거나 전략적인 선택과 집중을 통해 비교우위를 창출하는 것이 필요하며, 우선순위 목표를 중심으로 R&D 정책을 다른 산업, 경제, 통상, 외교정책 등과 통합·연계하여 추진할 것이 요구됨

〈표 3〉 글로벌 경쟁력 관점에서 EU와 한국의 상황 비교

구분	EU의 상황	한국의 상황
진단	미·중과의 혁신 격차 확대	• 핵심 과학기술 분야에서 한국의 수준이 정체되고 있는 가운데, 중국은 미국과의 격차를 빠르게 좁혀가며 이미 한국을 추월했다고 평가됨
	산업경쟁력 약화	• 반도체, 자동차, 조선산업 등 기존 우위 산업 외에 신성장동력이 부재하며, AI나 바이오 등 차세대 첨단기술 산업에서는 아직 열세
원인	생산성 저하	• 노동인구 감소와 경직된 노동시장 등으로 인하여 생산성 저하 지속 (세계 GDP 순위 : 10위('20) → 11위('21) → 13위('22) → 14위('23))
	높은 수출/에너지 의존도	• 작은 내수시장으로 인해 경제 규모 대비 수출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편으로, 미국을 중심으로 자국 우선주의가 확대됨에 따라 수출 환경 악화 전망 • 천연자원이 부재하여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매우 높음('23년 기준 93.8%)
	회원국 간 추진 정책 파편화	• 단일 국가로서 EU와는 상황이 조금 다르지만, 국가 리더십 부재 상태가 장기화될 경우 각종 대내 정책 및 대외 외교 전략의 실행에 차질 발생

참고문헌

- Council of the EU, Budapest Declaration on the New European Competitiveness Deal, 2024.11.8.
- European Commission, A Competitiveness Compass for the EU, 2025.1.29.
- European Commission, The future of European competitiveness: Part A – A competitiveness strategy for Europe, 2024.9.
- Letta, E., Much more than a market: Speed, security, solidarity. 2024.4.
-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운영위원회, 2022년도 기술수준평가 결과(안). 2024.2.29.
- 한아름, 폰데어라이엔 집권 2기 EU 통상정책: 심화되는 美·中 경쟁 속 생존 전략. KITA 통상 리포트 Vol.13

[KISTEP 브리프 발간 현황]

발간호 (발행일)	제목	저자 및 소속	비고
164 (25.01.09.)	글로벌 주요기관 전망 2025년 유망기술 트렌드 및 시사점	최창택 (KISTEP)	혁신정책
165 (25.01.13.)	민·군 레이다 응용기술	김상준·문성훈 (KISTEP)	기술동향
166 (25.01.14.)	R&D분야 온실가스감축인자 예·결산제도 현황 및 시사점	김아람·여준석 (KISTEP)	혁신정책
- (25.01.14.)	KISTEP Think 2025, 10대 과학기술혁신정책 아젠다	황지호·이경재·최대승 김다은·박서안 (KISTEP)	이슈페이퍼 (제372호)
167 (25.01.20.)	트럼프 2기 행정부의 기후변화-에너지 분야 정책변화 전망 및 시사점	홍정석(KISTEP) 이영준(한국원자력연구원)	혁신정책
168 (25.02.12.)	글로벌 AI 패러다임 변화와 대응 전략 - 트럼프 정부의 AI 정책 전환과 중국 딥시크의 부상을 중심으로 -	주경원 (KISTEP)	혁신정책
169 (25.02.13.)	EU 폰테어라이엔 2기 집행위원회의 혁신정책 추진 방향 및 시사점 : 경쟁력 나침반 이니셔티브의 주요 내용	송창현 (KISTEP)	혁신정책